

-(으)ㄴ/는 편이다

~한 편이다 — 경향, 비교적 ~하다

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. 편은 ‘쪽’이라는 뜻이어서, 이 표현은 어떤 대상을 척도의 한쪽에 놓습니다. 단정적인 주장을 피하는 아주 한국어다운 방식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단어 종류	형태	예
형용사	-(으)ㄴ 편이다	좋다 → 좋은 편이에요
동사	-는 편이다	가다 → 가는 편이에요
있다 / 없다 류	-는 편이다	재미있는 편이에요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편이에요
과거의 경향	-(으)ㄴ/는 편이었 다	조용한 편이었어요
쓰지 않음	한 번의 사건	어제 늦은 편이에요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다음을 따릅니다: 관형형 체계. 형용사는 -(으)ㄴ 편이다를 씁니다: 좋은 편이에요. 동사는 -는 편이다를 씁니다: 자주 가는 편이에요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

성격이나 특징을 부드럽게 말해 줍니다.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는 전문가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‘매운 것을 잘 먹는 쪽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딱 잘라 자기 평가를 하면 통명스럽게 들리기 때문에, 한국어 화자는 자신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늘 씁니다.

이 표현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경향을 나타냅니다. 한 번 있었던 일에는 ‘쪽’이 없습니다. 어제 늦은 편이에요가 안 되는 이유는, 어제 한 번 늦은 것은 패턴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.

■ 예문

- 1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.
- 2 이 동네는 조용한 편이에요.
- 3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.
- 4 그 식당은 값이 좀 비싼 편이에요.
- 5 저는 요리를 자주 만드는 편이에요.
- 6 학생 때는 조용한 편이었어요.

■ 비교

-(으)ㄴ/는 것 같다
것 같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누그러뜨리고, 편이라는 성질의 정도를 누그러뜨립니다. 확신이 있어도 편이다를 쓸 수 있습니다.
비싼 것 같아요. (비싸다고 생각한다) / 비싼 편이에요. (비싼 쪽이다)

기본 형용사
기본형은 단정하고, 편이라는 척도 위에 놓습니다. 자기소개를 할 때 한국어는 부드러운 쪽을 훨씬 선호합니다.
저는 조용해요. (조용하다) /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. (조용한 편이다)

좀 / 조금
이런 말들은 정도를 줄이고, 편이라는 다른 것과 비교해 위치를 정합니다. 함께 쓰기도 좋습니다: 좀 비싼 편이에요.
좀 비싸요. (조금 비싸다) / 비싼 편이에요. (비교적 비싸다)

■ 주의

- ✗ 이 동네는 조용하는 편이에요.
- 이 동네는 조용한 편이에요.
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-(으)ㄴ을 씁니다. -는은 동사와 있다 류에 씁니다.
- ✗ 저는 요리를 자주 만드는 편이에요.
- 저는 요리를 자주 만드는 편이에요.
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처럼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어제 조금 늦은 편이에요.
- 어제 조금 늦었어요.
편이라는 습관이나 전반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. 어제 한 번 있었던 일은 단순한 사실이므로 그냥 과거형으로 씁니다.